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타인의 높은 기준, 조건적 수용)과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조합할 때 어떤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군집이 학업지연행동 점수 상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38명(남성 71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군집(비완벽주의 집단,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기대부합 집단)이 나타났다. 이 중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타인의 높은 기준 점수가 높으면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평균 이상인 특성을 보였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학업지연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 타인의 높은 기준, 그리고 조건적 수용이 가장 낮은 반면 자기결정성의 각 하위요인 점수가 평균 이상인 '비완벽주의 집단'은 학업지연행동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수용이 가장 높은 반면 자기결정 동기가 모두 평균이하로 가장 낮은 '기대부합 집단'은 가장 높은 학업적 지연 행동을 보였다.

주요어 :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결정성, 학업지연행동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적 기준이나 사회가 부과한 비현실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불안, 우울, 낮은 자기 존중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의 일부분은 불필요한 지연행동¹⁾과 관련이 있는데, 개인은 자신이 세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부모와 같은 타인들의 과도한 기대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지각할 때, 실패 상황을 최대한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연구실습 수업(담당교수: 이동귀)에서 이루어졌음. 또한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BK21 학교교육 효과평가 전문가 양성 사업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김민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E-mail: kms82qwert@hanmail.net.

1) 최근의 논의(Schraw, Wadkins, & Olafson, 2007)를 보면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 다차원적이고 일부 차원(인지적 효율성, 절정경험)은 적응적이고 다른 차원(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루기)은 부적응적으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학업지연 행동은 학업과 관련된 중요 과제 수행을 정해진 기한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needlessly) 미루는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업지연 행동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수반한다고 가정되며(Solomon & Rothblum, 1984), 따라서 어떤 과제 수행을 신중하게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학업지연 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구별되어야한다.

회피하기 위해 미루기를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지연행동은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속시키며, 학업수행, 그리고 대인관계에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Howell, Watson, Powell, & Buro, 2006; Schraw, Wadkins, & Olafson, 2007).

이러한 부적응적 지연행동의 한 원인으로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perfectionism) 성격특질에 관심을 가져왔다(Hewitt & Flett, 1991). 많은 초창기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며, 남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경직된 사고로 인해 쉽게 패배감을 느끼는 단일한 성격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Burns, 1980). 그러나 1990년대 두 계열의 연구자들(Frost, Marten, Lahart, & Re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이 완벽주의가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밝힌 이후 다차원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특히 Campbell과 Di Paula(2002)는 완벽주의를 단일한 성격 특성이 아닌, 자신에 대한 다양한 신념들을 포함한 자기 개념(self-concept)의 일부로 보고 개인의 자기 개념, 목표추구, 그리고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내적동기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 차원 중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의 동기적 특성을 잘 구분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부적응적인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Flett et al., 1991; Sadler & Sacks, 1993; 이은정, 2002; 서은희,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Burns(1980)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진 개인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행동을 미루지 않는 반면, 완벽한 수행과 타인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내적동기 및 자율성과 같은 자기 결정성이 부족해 학업지연행동을 반복한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자기결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제안(Campbell & Di Paula, 2002)은 있었지만 실제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하위

차원들의 점수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과 동기수준에 따라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는 집단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각 집단의 특성이 지연행동과 같은 실제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이하 H-F MPS)의 하위요인들과 내적 동기를 반영하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차원들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 혹은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각 하위 집단에 따라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학업 지연행동 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내적동기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 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짧게 언급된 것처럼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살펴보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Self Oriented Perfectionism: 이하 SOP),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Other Oriented Perfectionism: 이하 OOP),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이하 SPP)로 구성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H-F MPS)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 H-F MPS를 사용한 국내 연구에서, 세 하위척도 중에서 SPP가 심리적인 부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고독감, 수줍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사회적 자존감, 우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석인, 현명호, 2007). 또한 Flett, Hewitt, Blankstein, 및 O'Brien(1991)의 연구결과, SPP는 우울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반면 SOP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서 SOP와 관련해서 비일관적인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SOP는 일반적으로는 우울과 상관성이 없는데, 이 차원이 성취를

해야 하는 맥락에서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 Flett, 1993; Hewitt, Flett, & Ediger, 1996). 이와 더불어, SOP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또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일부 연구(Flett, et al., 1992; Saddler & Sacks, 1993)에서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이 상관이 없는 반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 수록 지연행동을 덜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권정혜 & 박재우, 1998; 이은정, 2002; Frost, Marten, Lahart, & Resenblate, 1990).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OP를 포함한 H-F MPS의 하위요인들의 특성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이 비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원인으로 SOP와 SPP에 또 다른 하위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Campbell과 Di Paula(2002)는 H-F MPS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기개념(Higgins, 1987)과 목표추구 동기(Deci & Ryan, 198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OP와 SPP만을 추가적으로 요인분석 하였는데, 연구결과, SOP와 SPP 밑에도 각각 2개씩의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SOP에는 스스로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해지는 것의 중요성(Importance of Being Perfect)”과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완벽함에 대한 추구(Perfectionistic Striving)”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P의 경우 완벽할 경우에만 타인으로부터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수용(Conditional Acceptance)”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타인의 높은 기준(Other's High Standards)”이 포함되어 있었다.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결과, 조건적인 수용은 자기명확성과 부정상관을 보인 반면 목표의 비일관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P의 하위요인인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이와 반

대의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외적인 동기로 인해 비일관적인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 가치, 그리고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낮은 자기결정성(내적 동기)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행동, 동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SOP, SPP의 추가적인 하위요인들과 내적 동기를 반영하는 자기결정성 요인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하위 집단 혹은 군집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 하위 집단이 학업지연행동에서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자 집단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독특한 완벽주의자 집단이 존재하는지, 또 이 집단이 학업지연행동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연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비록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동기가 높을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는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Deci & Ryan, 1992).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내재 동기와 더불어 그 동기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적 지향성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Ryan, 2003), 이러한 동기적 지향성으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언급하고 있다(Deci & Ryan, 2000).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율성은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로서 스스로의 관심과 통합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Ryan, 1995). Deci와 Ryan(2000)은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면 목표행동 수행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때 충족되는 유능감이 발휘될 수 있으며 개인이 최적의 조건을 찾고,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시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과 유능성이 내재동기를 유지하게 하기 위

해서는 관계성이 필요한데,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79; Ryan, 1995에서 재인용).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ci & Rice, 1985).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자기결정성과 같은 내적 동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자들(Flett et al., 1992; Onwuegbuzie, 2002)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과제 수행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과제 수행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실패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연행동을 지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은정(2002)은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동기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과는 다르게,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은 성취동기 측면에서 볼 때 자신에게 일정한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연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Ferrari(1992)는 완벽주의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들로 지연행동자들과 비지연행동자들을 구분하였는데, 그는 지연행동이 완벽주의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것은 지연행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지연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자기 지향적인 완벽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dler & Sacks, 1993). 그러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다소 엇갈린 결과들을 보여 왔다(윤숙경, 1997; Flett 등, 1992; Saddler & Sacks, 1993). Frost(1990)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점수가 낮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지연행동 점수가 높게 나온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권정혜, 박재우, 1998; 이은정, 2002). 이러한 비일관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에도 집단 내 차이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만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완벽주의의 하위척도에 자기결정성 변인을 추가했을 때, 다양한 하위차원의 조합에 따라서 지연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mpbell과 Di Paula(2002)가 제안한 것처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그 밑에 동기에 영향을 받는 여러 하위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기결정성에 따라 어떤 집단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F MPS 척도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발생적인 집단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각 집단이 학업지연행동 점수 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자율성과 유능성 같은 내적인 자기결정 동기가 높은 완벽주의 집단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실패에 대한 공포와 수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더라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보거나 대처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행동과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분석방법으로 먼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후 군집별로 학업지연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에서 공학 교양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38명(남자 71명, 여자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7세에서 33세 사이로 평균연령은 21.66세(SD = 2.61)였다. 참가자들의 학년분포는 1학년 18명(13%), 2학년 31명(21.5%), 3학년 38명(27.5%), 4학년 45명(32.6%), 기타 6명(5.4%)이었다.

측정도구

완벽주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 MPS)를 국내에서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15문항),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15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15문항) 3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영역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하위차원을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은 완벽추구(5문항), 완벽함의 중요성(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타인의 높은 기대(6문항), 조건적 수용(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에 각각 해당되는 문항의 예로, “나는 가능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관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가 있다.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형식(0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문항에 응답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과 관련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 H-F MPS의 하위요인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ber, Kempe, 그리고 Keogh(2008)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8, .87, .76, .6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각 영역별 내적합치도는 .80, .84, .72, .70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1992)이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이명희(2007)가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6문항), 관계성(6문항), 유능성(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자율성은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유능성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관계성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형식(1 = 전혀 아니다, 6 = 매우 그렇다) 문항에 응답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과 관련된 기본심리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아영과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BPNS의 하위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39, r : .51, r : .38 all ps < .001) 각 영역의 내적합치도는 .89, .77,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각 영역별 내적합치도는 .82, .83, .84로 나타났다.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itken(1982)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만성적인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을 구별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형식(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문항에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Aitken(1982)의 연구에서 내적합

치도(Cronbach α)는 .82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서은희와 박승호(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국내 기존 연구에서 API 총점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횟수, 보고서 완성 시점 등과 유의미한 상관(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횟수: $r = .48$; 보고서 완성 시점: $r = .45$ all $ps < .001$)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과대학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설문시작 전에 참가자의 권위와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약 15분-20분 정도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완벽주의 하위척도와 자기결정성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완벽주의 하위척도와 자기결정성이 학업지연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세 가지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서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완벽주의 하위요인 4개와 자기결정성 3개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집분석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으로 완벽주의, 자기결정성 7개 하위요인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연달아 실시함

으로써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학업지연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학업지연행동이다.

결 과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개인적 완벽 주의의 하위 요인인 완벽추구는 완벽함의 중요성, 타인의 높은 기준과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함의 중요성은 타인의 높은 기준, 조건적 수용, 유능성, 관계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높은 기준은 조건적 수용, 유능성과는 정적 상관을, 관계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있어서 자기결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건적 수용은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적 수용을 제외하고는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하위 요인 모두 학업지연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타인의 높은 기준, 그리고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더 낮게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M	SD
완벽추구	-								23.95	5.18
완벽함의 중요성	.73**	-							19.06	4.79
타인의 높은 기준	.37**	.51**	-						26.96	5.41
조건적 수용	.13	.28**	.26**	-					14.51	3.77
자율성	.32**	.03	-.14	-.38**	-				26.38	4.98
유능성	.43**	.35**	.24**	-.30**	.46**	-			23.80	4.87
관계성	-.20*	.21*	-.18*	-.34**	-.49**	.58**	-		26.91	5.13
학업지연 행동	-.51**	-.31**	-.20*	.05	-.39**	-.37**	-.19**	-	52.89	10.52

주. N = 138. * $p < .05$. ** $p < .01$.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H-F MPS 척도의 자기 지향적, 사회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아래 각 2개의 하위요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Capm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지향적 완벽주의에 속하는 완벽함 추구, 완벽한 것 자체의 중요성, 사회지향적 완벽주의에 속하는 타인의 높은 기준, 그리고 조건적 수용 이상 4개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 척도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 3개의 하위요인, 총 7개의 하위요인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3개의 군집에 배정되었고, 군집 1은 33명(전체의 23.91%), 군집 2는 63명(전체의 45.65%), 군집 3은 42명(전체의 30.44%)²⁾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그림 1에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으므로 각

군집변인들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다. 군집 1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이고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자기결정성이 모두 평균 이상인 '비(非)완벽주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비(非)완벽주의 집단은 수행에 대한 기준은 높지 않지만 자율적 동기는 평균 이상인 집단을 의미한다. 군집 2는 완벽 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타인의 높은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또한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군집 3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건적 수용에서는 평균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기대부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목표추구 행동을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Campbell과 Di Paula(2002) 연구에서는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조건적 수용' 차원이 자기결정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조건적 수용을 더 높이 지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와 관련된 내재적 동기가 낮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대부합 집단'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받

2) 카이자승 검증 결과, 각 군집 내의 분포는 성별에 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성별: $\chi^2(2, N = 138) = 1.82, p > .05$].

영하는 사람들, 즉 '조건적 수용'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기결정성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군집들이 무선적(random)이나 우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혹은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세 개의 군집이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 하위척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다변량 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Wilks' 랏다 값을 살펴보면,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Wilks' Λ = .15, $F(14,$

258) = 28.63, $p < .001$, 부분 $\eta^2 = .58$]. 군집 1, 2, 그리고 3은 완벽추구 [$F(2, 135) = 81.81$, $p < .001$, 부분 $\eta^2 = .55$], 완벽함의 중요성 [$F(2, 135) = 47.60$, $p < .001$, 부분 $\eta^2 = .41$], 타인의 높은 기준 [$F(2, 135) = 27.59$, $p < .001$, 부분 $\eta^2 = .29$], 조건적 수용 [$F(2, 135) = 9.97$, $p < .001$, 부분 $\eta^2 = .13$], 자율성 [$F(2, 135) = 61.78$, $p < .001$, 부분 $\eta^2 = .48$], 유능성 [$F(2, 135) = 38.34$, $p < .001$, 부분 $\eta^2 = .36$], 관계성 [$F(2, 135) = 51.34$, $p < .001$, 부분 $\eta^2 = .43$]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		군집1($n = 33$) 비완벽주의 집단	군집2($n = 63$)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군집3($n = 42$) 기대부합 집단
다차원적 완벽주의	완벽추구	-.65	1.15	-.50
	완벽함의 중요성	-.82	1.11	-.29
	타인의 높은 기준	-1.04	.96	.08
자기결정성	조건적 수용	-1.06	.13	.93
	자율성	.58	.58	-1.15
	유능성	.10	.95	-1.15
	관계성	.56	.59	-1.16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 $M = 0$, $S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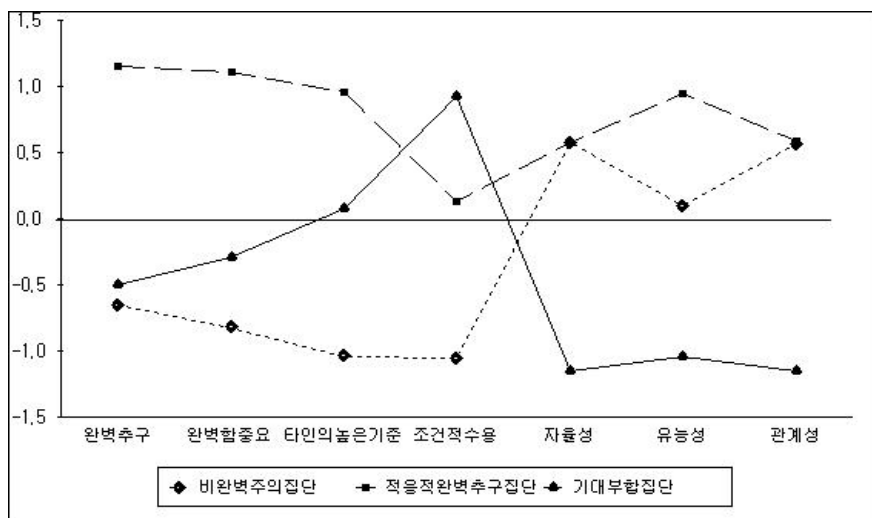


그림 1. 군집프로파일

분산분석 결과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들이 학업지연행동 점수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종속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군집 1, 2, 3이고 종속변인은 학업지연행동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집별로 학업지연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35) =$

$17.7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결정성에 따른 세 집단들이 학업지연행동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지연행동에서 집단 2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집단 2, < 집단 1, 3, $p < .001$).

표 3. 각 군집별 학업지연행동의 평균점수(N = 138)

종속변인	군집 1 비완벽주의 집단 (n = 33)		군집 2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n = 63)		군집 3 기대부합 집단 (n = 42)		F(2, 135)	사후검정
	M	SD	M	SD	M	SD		
학업적 지연행동	55.49	8.83	48.03	11.24	58.14	6.93	17.74***	2, < 1, 3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witt와 Flett(1991)의 H-F MPS 척도 중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완벽함의 추구, 완벽함의 중요성), 사회부과적 완벽주의(타인들의 높은 기준, 조건적 수용)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반영하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차원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따라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 혹은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각 하위집단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공대생들의 경우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 점수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분류했을 때 3개의 독특한 군집(비완벽주의 집단,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기대부합 집단)이 존재하며, 이 3개의 군집 중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이 다른 두 집단, 즉 '비완벽주의 집단'이나 '기대부합 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에서 상대적으로 덜 꾸물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공대생들은

동질적(homogeneous)이지 않으며 특히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이 하위유형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업지연행동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공대생들과 함께 일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경우 학생들의 꾸물거림 행동을 접했을 때 이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결정성 수준의 프로파일을 함께 평가해 봄으로써 이들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두 가지 하위유형(비완벽주의 집단, 기대부합 집단)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Hewitt & Flett, 1990, 1991), 대부분의 연구들이 완벽주의를 인지적인 구성요소로 고려하

3) 학업지연행동 점수의 범위가 19-95점인데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세 집단은 48-58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의 절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군집 2(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속한 공대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꾸물거린다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였으며, 동기적인 측면에서 완벽주의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Flett, Sawatzky, & Hewitt, 1995). 완벽주의가 가진 동기적인 측면을 배제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구성개념을 통해 학업지연행동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Flett, Hewitt, Blankstein, & Koledin, 1991; Flett, Russo, & Hewitt, 1994).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성의 하위 차원들을 군집변인으로 선택하여 이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군집들의 개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자기결정성과 자기 다른 관계 패턴을 보이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 수준(Campbell & Di Paula, 2002)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완벽추구, 완벽함의 중요,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타인의 높은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내적동기를 나타내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군집 2(적응적 완벽추구 집단)의 학업지연행동이 가장 낮은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수용에서 평균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자기결정성의 요인들이 모두 평균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난 군집 3(기대부합 집단)에서 학업지연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을 적게 한다는 선행연구들(Frost et al., 1990; Saddler & Buley, 1999)을 지지하는 동시에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결정성과 같은 동기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동기의 관련성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Flett, Sawatzky 그리고 Hewitt(1995)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라는 개념이 완벽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또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이 설정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동기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동기가 행동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동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있는데, 자기 지향적인 완벽주의가 높을 경우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함은 물론 그러한 자신의 기준에도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동기적인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군집 1과 군집 3에서 나타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의 패턴을 살펴보았을 때,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군집 3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수용만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집 1에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난 반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특히, 조건적 수용이 개인의 자기결정성과 같은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Campbell과 Di paula(2002)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 다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속 연구들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 군집에서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타인의 높은 기준 점수를 살펴보면, 학업지연행동이 가장 낮은 군집 2(적응적 완벽추구 집단)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점수뿐만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인 타인의 높은 기준 점수가 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군집 1(비완벽주의 집단), 군집 3(기대부합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타인의 높은 기대 또한 내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 또한 타인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 동기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동기화되지만,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내적인 동기 또한 높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일치하게, Mills와 Blankstein(200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집단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도 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동기(예를 들어, 학점, 경쟁과 평가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더라도 내재적 동기와 동시에 타인들의 높은 기대로부터 오는 외재적인 동기를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어야 학업지연행동을 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지연행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내적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3(기대부합 집단)이 조건적 수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동시에 자기결정성의 하위차원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수행을 할 경우에만 인정을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학업과 같은 수행이 외부의 수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지나치게 맞춰져 자기결정 동기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 지향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내적 동기에 의해 자신이 설정한 완벽해지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지만,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사회적으로 타인에 의해 부과되는 동기에 의해 행동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는 동기의 부족과 잘못된 신념들로 인해서 건설적인 사고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의 수준이 점차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Hewitt & Flett, 1991). 특히,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외적동기의 증가와 내적동기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Deci & Ryan, 1985). 특히 완벽할 경우에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적 수용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낮추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상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응적인 학습 전략과 효과적인 자기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Arthur & Hayward, 1997), 이러한 어려움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가 단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인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 높은 기대보다 조건적인 수용이 내재적 동기를 낮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두 하위요인의 특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3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모두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는데,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결정성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이 높을 때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훈 & 신희천, 2007). 이명희와 김아영(2008)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 그 자체로서 흥미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행동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군집 1(비완벽주의 집단)과 같이 자기결정성이 높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의 높은 기대와 같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낮은 경우, 자기결정성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평균 이상이고 자기지향적인 완벽주의가 높은 군집 2(적응적 완벽추구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학업지연행동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완벽주의의 적응적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써, 특정 상황에서는 내재된 동기와 함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행위를 동기화시키는 내

적 그리고 외적인 강화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라(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업 동기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경우라도,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성취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Harackiewicz와 Elliot(1996)는 개인이 숙달목표와 수행준근 목표를 갖게 되면 능력의 신장이나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완벽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장면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운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완벽을 기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가졌을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 완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감, 긴장감, 불편감과 같은 부정적 결과와 무관하게 성취 장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결정성만 높은 집단의 경우는 개인의 내재적인 동기가 강조되지만 상대적으로 과제에 대한 성취목표의 설정과 자신이 세운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며,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일을 조직화, 체계화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결정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나, 완벽주의를 동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추수연구들을 통해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군집분석이 표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⁴⁾ 실제로, 그림 1을 보면, 군집 1,

2의 경우 자기결정성의 3개 하위요인들에서 그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프로파일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자율성과 관계성의 경우 그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의 특성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자기결정성을 3개의 하위요인이 아닌 자기결정성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살펴봐도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완벽함의 중요성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타인의 높은 기준은 Campbell과 Di Paula(2002)의 가정과는 다르게 학업지연행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성을 잘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적 수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의 기능이 모두 학업지연행동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며, 패턴이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 이 세 개의 하위요인과 ‘조건적 수용’ 그리고 ‘자기결정성의 총합’만으로 집단을 구분해도 이와 비슷한 세 개의 군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편이성 때문에 공과대학에서 공학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공대생이 아닌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과 상이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집단이 타당한지를 재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학업지연행동 외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지표를 설정하여 각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을 살펴보면,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H-F MPS의 하위요인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하위요인 아래 또 다른 하위차원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였지만,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하위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연발생적인 집단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군집들이 기존 이론이나 논리적인 추론 방향과 항상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본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개의 군집(비완벽주의 집단, 적응적 완벽추구 집단, 기대부합 집단)이 이론적,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군집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역시 이 제한점에 동의하는 한편, 동시에 이러한 측면이 군집분석 방법론이 지니는 제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군집분석 자체가 자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H-F MPS 척도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의 높은 기준에 대한 지각이 학업적 지연 행동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적응적 역할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존감, 건설적 시도, 지각된 개인의 높은 통제(Flett et al., 1991), 적극적 대처, 학습에 관한 자기 효능감과 수행, 적응적 인지 학습 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 (Mills & Blankstein, 200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ett, Hewitt, Blankstein, & Dynin, 1994;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5). 후속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 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이 두 완벽주의 집단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결정성 하위요인의 조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에 따라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자기결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제안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완벽주의의 하위차원과 자기결정성의 하위차원들의 조합을 경험적으로 검토했을 때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서 학업지연행동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학업 수행에서 꾸물거리는 공대생들의 특성을 완벽주의 및 자기결정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

하는 학생일수록 스스로 과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성 및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상담에서 자율성과 효능감을 높여주고,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응적인 전략의 활용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업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Flett & Blankstein, 1994).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낮고 내재적 동기가 평균 이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기결정성의 점수는 유사하지만 완벽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을 유의미하게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기결정성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으로 학업지연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정혜,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고희경, 현명호 (2009).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97-116.
- 박재우 (1998). 대학생의 과제 지연 행동에 대한 완벽주의 모델과 역기능적 태도 모델의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병훈, 심희진 (2007). 자기 결정성과 학업 꾸물거림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은희 (2006).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은희, 박승호 (2007). 의지통제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1, 423-436.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미라(2004).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동기관련 문제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정(2002).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및 통제소재외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석인, 현명호 (2007).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Ait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
- Arthur, N. & Hayward, L.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chieve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post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 622 - 63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 - 529.
- Bowlby, R. (1979). Chaplains are different. *British Medical Journal, 6256-1689*.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 34-51.
- Campbell, J. C. & Paula, A. D.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I. F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182-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dlelr, C. L., & Connell, J. P. (1987). Children's intrinsic, extrinsic, and internalized motivation: A developmental study of behavioral regul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357-362.
- Connell, J. P., & Ryan, R. M. (1984). A developmental theory of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ducation Quarterly, 11*, 64-7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 Plenum.
- Deci, E. L., & Ryan, R. M. (1992). The initiation and regulation of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In A. K. Boggiano & T. S. Pittman (Eds.). *Achievement and motivation: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 (pp. 9-3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Ferrari, J. R. (1992). Procrastinators and perfect behavior: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presentation, self-awareness and self-handicapping compon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75 - 84.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 - 406.
- Ferrari, J., Johnson, J., & McCown, W. (1995). Assessment of academic and everyday procrastination: the use of self-report measures. In: J. Ferrari, J. Johnson and W. McCown (Ed.),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47 - 70). Plenum Press, London,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Koledin, S.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 and irrational thinking.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9, 185 - 201.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 85 - 94.
- Flett, G. L. & Blankstein, K. R. (1994). Worry as a component of test anxiet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In: G. C. L. Davey and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135-181). Wiley, London.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Dynin, C.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Type A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77 - 485.
-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5). Perfectionism,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diathesis-stress model. *Current Psychology*, 14, 112-137.
- Flett, G. L., Hewitt, P. L., & Sawatzky, D. L. (1995). *Perfectionism and goal commitment in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Copenhagen, Denmark.
- Flett, G. L., Russo, F. A., & Hewitt, P. L.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constructive thinking as a coping respon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2, 163-179.
- Flett, G. L., Sawatzky, D. L., & Hewitt, P. L. (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goal commitment: A further comparison of two perfectionism measur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7, 111-124.
- Frost, R., Marten, P., Lahart, C., and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 - 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Hair, J. H.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Grimm, L. G. and Yarnold, P. R. (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47-205). Washington DC.
- Harackiewicz, J. M., Barron, K. E., Carter, S. M., Lehto, A. T., & Elliot, A. J. (1997).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achievement goals in the college classroom: Maintaining interest and making the gra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84-1295.
- Harackiewicz, J. M. & Elliot, A. J.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61-475.
- Hewitt, P. L., & Flett, G. L. (1990).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23 - 43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76-280.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6).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Longitudinal assessment of a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10-340.
- Howell, A. J., Watson, D. C., Powell, R. A., & Buro, K. (2006).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pattern and correlates of behavioral postpon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519-1530.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Kanfer, F., & Zeiss, A. M. (1983). Standards and self-efficacy in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19-329.
- McCown, W., & Johnson, J. (1991). Personality and chronic procrastination by university students during an academic examination peri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413 - 415.
- Milgram, N. A., Mey-Tal, G., & Levison, Y. (1998). Procrastination, generalized or specific,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297-316.
- Mills, J. S., & Blankstein, K. R. (2000).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1191-1204.
- Onwuegbuzie, A. J., & Collins, K. M. T. (2002). Reading comprehension among graduat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90*, 73-90.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2003). *The dynamic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chool*.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Seoul, Korea.
- Sadler, C. D., & Sacks.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 863-871.
- Saddler, C.,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 686 - 688.
- Schraw, G., Wadkins, T., &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12-25.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 - 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 65 - 94.
- Stoeber, J., Kempe T., & Keogh, E. J. (2008). Facets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elings of pride, shame, and guilt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06 - 1516.
- Van Eerde, Wendelien. (2000). Procrastination:

Self-regulation in Initiating Aversive Goal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9, 372-390.

Van Yperen, N. W. (2006). A novel approach to
assessing achievement goals in the
context of the 2×2 framework: Identifying
distinct profiles of individuals with different
dominant achievement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32 - 1445.

The Cluster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elf-Determination, and their Differences in Academic Procrastination

Min-Sun Kim Young-Hee Choi Bun-Ok Suk Keun-Young Baek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natural groupings of people in terms of the sub-factors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Importance of Being Perfect and Perfectionistic Strivi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Conditional Acceptance and Others' High Standard) as well as Self-Determina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nd their differences in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with a college student sample (N = 138) suggested the presence of three clusters. "The Adaptive Perfectionism-Pursuit Group" is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scores on Perfectionistic Striving and Being Perfect, and a higher score on Self-Determination than other groups, and showed a significantly low scor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an others. By contrast, "Non-Perfectionism Group" is characterized by the lowest scores on Perfectionistic Striving, Others' High Standard, and Conditional Acceptance as well as the highest scores across two the sub-factors of Self-Determination, and showed a relatively high scor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inally, "Expectation Correspondence Group",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scores on Conditional Acceptance and the lowest score on Self-Determination, showed the highest scor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ose who believe others imposed them high standards along with a low level of Self-Determination may experience more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than other people.

Keyword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elf-determina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6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20일